

에너지절약 실천만이 살길이다!

전문가가 말하는 여름철 에너지 30% 절약법

폭염의 날씨가 연속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장마철이면 고온 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까지 올라 갈거라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온몸이 땀으로 흥건합니다. 선풍기 바람을 최대한 틀어보지만 좀처럼 더위가 식혀질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에어컨이지만 마음 놓고 가동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바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 몇 급절 많은 전기요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에어컨에 같은 전력량이라도 조금만 주의할 기울이면 좋은 효율의 냉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름철 주요 가전제품중 하나인 에어컨, 전기요금 누진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청결한 여름을 나기 위한 요령들을, 때마침 에어컨 가스 충전을 위해 방문한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효율적인 절약냉방을 위한 준비

먼저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실외의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을 닫은 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하여 가급적 햇볕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를 통하여 뜨거워진 냉매를 식혀주는데, 바람이 빠져나가는 프로펠러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냉매가 식지 않아 냉방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장시간 가동을 하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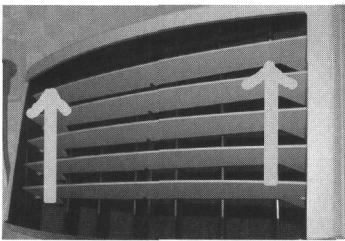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에어컨의 온도 설정 요령

문을 닫고 처음 가동할 때는 설정 온도를 낮추어 강하게 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 또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약 10여분동안에 걸쳐 뜨거워져 있는 실내의 공기를 차갑게 해준 후, 희망온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깥 공기와의 온도차를 5℃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외부의 온도가 32℃인 경우 에어컨의 설정온도는 27℃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은데, 실내의 온도 1℃를 낮추는데 필요한 전력의 소모는 7%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락소모도 중요하지만 온도차이가 크면 냉방병 등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어컨 가동 요령



온도 설정을 맞추었다면 실내의 환경에 맞게 가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실내의 온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린 상태이며, 차가운 공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천정으로 향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람의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어컨을 가동 중일 때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는 실내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켜 더욱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력소모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한 대의 용량은 선풍기 30대와 비슷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10~15%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절약을 위한 에어컨 관리 요령

가정용 에어컨에는 누구라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필터입니다. 에어컨 전면에 보면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필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바람이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냉방능력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실내의 공기가 비교적 깨끗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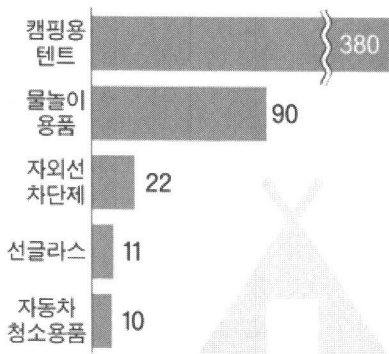
만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다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터는 가볍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었다면 이 부분에서만도 5%의 전력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빼놓아야 시간당 5w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요금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말마다 ‘썹썹’ 세차용품 20% 더 팔리고 골프웨어 14%

가뭇에 행복한 제품들 텐트 판매 380% 급증, 통조림 매출은 32% 늘어

가뭇·땀별이 반가운 제품들

단위:%, 전년대비 판매증가율
* 6월 1~17일 이마트 판매 기준



롯데마트는 이달 초 자동차용 광택기의 발주 물량을 20% 늘렸다. 매년 6월 3~5%씩 성장하던 매출이 올해는 122%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달 1~15일 매출을 지난해 같

이용 물총(92%)이 인기였다. 야외족 증가에 맞춰 이마트는 등산용품만 있었던 스포츠매장 ‘빅텐’ 내에 처음으로 캠핑·물놀이용품 구역을 만들었다. 두 분야의 상품 가짓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두 배씩 늘었다.

나들이용 먹거리도 덩달아 인기다. 통조림 제품군은 롯데마트 내 매출이 32.5% 신장했다. 야외 특수를 노리는 식품업체들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내내 불고기 양념, 소시지 같은 제품을 캠핑장에 가져가 요리대회·시식회를 열고 있다.

전통적인 ‘햇별용’ 제품도 활짝 웃고 있다. 온라인장터 11번가에선 자외선 차단제 매출이 58% 늘었고, 양산은 33% 더 팔렸다. 롯데제과 빙과류의 이달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다. 권강욱 롯데마트 자동차용품 상품기획자(MC)는 “가뭇이라 난리지만 세차용품은 인기”라고 전했다. 비가 오지 않아 주말 나들이가 늘었고, 또 비 생각에 세차를 미루는 이들이 줄어 세차용품을 많이 사간다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자동차 청소용품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20.4% 늘어났다.

가뭇을 반기는 제품들이 있다. 무엇보다 야외용품이 인기다. 이마트에선 캠핑·물놀이용품의 매출이 확 늘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캠핑용품은 1년 전보다 203%, 물놀이용품은 90%가 더 팔렸다. 그중에서도 텐트(380%)와 물놀

너나없이 야외로 나갈 때는 TV 보는 시간이 줄어 흡소핑 매출 역시 감소하는 게 보통. 하지만 여름 상품만큼은 효자다. 롯데흡소핑에선 선글라스가 이달 들어 514억원 매출을 올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성장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스프레이드 인기를 끌어 이달 들어 16억8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골프용품 매출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말에 비로 골프를 취소하는 일이 거의 없어져서다. 신세계백화점에선 이달 골프웨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14% 늘어났다. 1~5월엔 전년 대비 신장률이 한 자릿수대였다.